



언론 백년史의 주인공들 수록 「韓國言論人物事典」

—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지금 제작중

19세기 말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역사 속에서 활약했고, 활약하고 있는 언론인들을

집대성한 「한국언론인물사전」이 편찬중에 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작업중인 이 사전은, 언론인만을 다룬 인명사전으로는 국내 최초이다.

“1883년 漢城旬報가 발간된 이래 언론계에 몸 담았던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현직 언론인들을 수록한 「언론인명부」 같은 책자는 있지만, 본격적인 인명사전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어떤 사람을 수록할 것인가 하는 기준설정부터가 까다로웠습니다.”

이 사전의 편찬을 총괄하고 있는 鄭晋錫교수(47·외국어대 홍보학과)의 말이다.

수록대상 언론인의 범주는 시기별로 3구분하여 그 기준을 달리했다. 우선 해방 이전 언론계에 몸담았던 인물은 모두 포함시키기로 하고, 해방 이후 4.19까지는 언론사의 편집국 전원과 기타 부서의 차장급 이상을, 그리고 4.19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편집국 차장 이상과 기타 부서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인물별 지면배당에도 신경을 써서 각 인물들을 특대·대·중·소 항목으로 나누어 집필할 계획이다.

“李人植, 崔南善, 李光洙 등은 작가로만 인식되어 있지만 실은 뛰어난 언론인들이기도 했습니다. 최남선의 경우 時代日報를 창간했고, 이광수 역시 조선일보와

이처럼 지금까지는 언론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인물들도 광범하게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이 사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전편찬의 기초작업인 인물카드 작성작업도 만만치 않았다. 전기·인물론·연감류는 물론 언론단체와 문공부의 기록 등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자료카드가 1만매 정도, 인물수로는 7천여명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다시 선별과정을 거쳐 5~6천명을 추려냈다.

일찌기 관훈클럽 사무국장으로서 재직하면서 言論史관계 자료의 발굴·정리에 크게 기여했던 鄭교수는 「일제하 한국언론투쟁사」 「한국현대언론史論」 등 여러 권의 저서를 펴냈다. 최근에는 大韓每日申報를 창간하고 주재했던 영국인 裴說에 관한 연구서를 내놓는 한편, 국내외에서 발굴한 관계사건자료들을 모아 프레젠테이션에서 전시회를 갖기도 하는 등, 한국언론사 연구에 대단한 집념을 보이고 있다.

“역사의 변천에 따라 언론 역시 모습과 위치를 달리했습니다. 그 속에서 언론인 개인도 榮辱을 함께 경험했지요. 梁起鐸씨처럼 청렴하게 소신껏 활동하다 가신 분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역사의 희생자였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언론사를 주관적 시각에서 보지 말고,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조명하는데 이 사전이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가 내년 6월경에 발간될 예정. [오애리 기자]



티베트 만다라의 세계唯一本 「西藏曼荼羅集成」 첫 공개

— 探求堂서 내년 4월 출간

지금 제작중

안국동 로타리 근처 종로경찰서 옆에 2층짜리 노란 건물이 하나 있다. 조금 낡은 듯한 모습이지만 주변의

古서점들과 어울려 제법 고풍스런 멋이 느껴진다. 그 건물 2층에 자리잡고 있는 探求堂(대표 洪錫禹). 대학다닐 때 사모은 전공서적중 한두권은 이 출판사의 이름이 찍혀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조금 색다른 작업으로, 국내에 한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티베트의 ‘曼荼羅’를 화집으로 제작하고 있다.

만다라(Mandala)란 원래는 원을 의미하지만, 密敎의 行者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속에 부처나 보살, 땅·물·불·바람 등의 元素가 정연하게 자리잡고 있어 하나의 ‘압축된 세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行者들은 이를 통해 번뇌를 물리치고 진리를 깨달아 佛性을 터득하고자 했다.

지금 제작중에 있는 「西藏曼荼羅集成」에는 139圖나 되는 많은 티베트만다라가 수록된다. 이 티베트만다라는 소나무 가조오(前 티베트 고루寺 貫主가 만다라 이론의 연구차 시킴으로 떠날 때, 만다라 이론을 집대성한 「탄트라部集成」(全30권)과 함께 갖고온 것으로, 중공의 정치적 압력으로 티베트에 돌아갈 수 없게 되어 오늘까지 소지해온 것이다. 이를 일본의 講談社에서 단독으로 교섭해서 책으로 찍어냄으로써 티베트 만다라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때 일본에서 열렸던 티베트만다라 전시회를 보게 된 洪사장이 이 그림을 국내에도 꼭 소개하고 싶어 이번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기독교 계통의 그림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

불교계의 그림은 거의 없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이 화집의 발간은 불교철학 미술사에 깊은 의미를 남길 것입니다.”

한때 반짝하는 책보다는 ‘만대에 남길 책’을 만들고 싶다는 洪사장은, 講談社와는 오래 전부터 거래가 있어왔기 때문에 만다라도판을 쉽게 들여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이 화집은 해설본 1권과 139개의 만다라도판으로 구성된다. 해설본은 인도불교가 티베트에서 승화되기까지의 전체적 흐름과 실물크기의 만다라圖가 함께 수록되며, 徐潤吉교수(동국대 불교대)와 朴敬勳씨(동국대 譯經院 편찬부장)가 번역을 맡아 우리나라 불교에 맞게 재구성했다.

“해설본에 수록될 그림을 촬영할 때 빨간색과 검은색이 동일하게 나오는 등, 흑백 사진으로는 그림에 나타난 다양한 빛깔이 나타나질 않아 한번 촬영했던 것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결국 색분해를 해서야 본래의 색을 낼 수 있었지요. 또 만다라圖 하나하나에 있는 수백, 수천개의 보살마다 일일이 번호를 붙여 그 이름을 명기하는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제작상의 어려움을 李靑林(57·상무)씨는 이렇게 말한다.

85년 제작에 착수하여 지금 7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4월쯤 간행될 예정이다. 500질 한정본에 가격은 65만원 정도. 일반인들이 사보기는 다소 어렵겠지만 도서관이나 불교계에선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클 듯.

이 책이 발간되면 체계적으로 정통화된 티베트만다라 세계유일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윤희 기자]